

I. Introduction

- A.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가 간통을 저질렀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 B. 목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쪽과 그래도 목사님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양쪽으로 나뉘지 않을까 싶다.
- C.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목사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은 목사님을 어떻게 대하실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목사님을 대해야 할 것이다.

II.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

A. 준엄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출 32:33-35, 34:6-7)

- 1.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것을 요구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에 동의한다.
- 2.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다. 이에 하나님은 대노하신다.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기로 하신다.
- 3. 모세의 중재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지는 않으시기로 하신다. 하지만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으심을 이야기 하신다.
 - a. **출 32:33-35 : 때가 되면 반드시 죄를 묻는다. (결국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신다.)**
 - b. **출 34:6-7: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 c. **히 9:22: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 이어진다.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
- 4. 이러한 관점에서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엄중한 징계를 가하실 것 같다.

B. 자비로운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 1.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었다.
- 2. 다윗은 간통죄를 범하였고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 번제물이나 속제재물을 드리면 가능했다. 하지만 이는 모르고 지은 죄에만 해당하는 것이었다. 고의로 범한 잘못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다윗은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 a. **레 20:10, 신 22:22**
- 3. 하지만 다윗은 죽지 않았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셨다.
- 4. 이러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격을 보면 하나님은 목사님을 용서해 주실 것도 같다.

III 하나님의 양면성의 상호 관계

- A. 어느게 정말 하나님의 모습일까? 하나님은 목사님을 어떻게 대하실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나타난다.
- B. **창세기 2장 17절**에 의거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 이어짐을 이야기 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스스로 받으신다는 것을 확인 시키신다.
- C.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베푸는 은혜이다. 이 때 가해자가 입힌 피해의 보상문제가 이슈가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가해자가 입힌 피해와 법정 형벌까지도 피해자가 감수하는 형태의 은혜이다. (10,000불 사기의 예화, 5,000불 도둑의 예화)
- D. **오늘 본문 마 18:23-35**이 이러한 세팅이다. 종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모든 피해를 왕이 직접 감내하고 더 나아가 종에게도 왕과 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 E. 하나님은 목사님의 죄의 댓가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다. 그리고 목사님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신다. 따라서 우리도 목사님이 지으신 죄의 댓가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누어 지고 목사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한다.
- F. 이 때 외부의 비난과 공격으로부터 목사님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사단이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을 막으신다. (**계시록 12:9-10**)

IV Conclusion

- A.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 삶은 절대로 노력한다고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다.
- B.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것은 전적인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진정한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고 나아가자.